불자 대학생, 청년 멘토를 만나다

대불련 진모영 감독 시사회 및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

대불련 선배 진모영 감독 대화의장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로 고민상담 "청년 꿈과 행복 위한 고민 해야"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오른쪽)이 진모영 감독과 청년불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년불자들이 청년멘토를 만나는 자리가 연이어 열려 눈길을 끈다. 진학과 취업 전선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감로수와 같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청년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1월 13일 종로3가 피카디리 영화관에서 영화 '올드마린보이' 상영회와 함께 진모영 감독과 대화의장을 개최했다. '올드마린보이'는 가족을 위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 잠수부 박명호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포교부장 가섭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등 포교원 스님들과 이경수 대불련 회장, 김성권 대불청 회장 등 200여 청년불자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큰 원력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 진모영 감독은 보살"이라며 "진 감독의 영화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 청년불자들이 영화 제작에 대한 원력과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올드마린보이'의 차이, 탈북민을 캐스팅한 이야기 등이 오갔다.

김성권 대불청 회장은 "대불련 출신으로 일반 기업 취업 외에도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진 감독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며 "청년불자들이 막연히 진학, 취업 등에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자신의 꿈이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고, 생활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불련은 11월 9일 고려대 4·19기념관에서 힐링멘토인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정목 스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를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자기가 자신을 탓하면 누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청년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정목 스님은 "꿈을 가지돼 탓하지는 말자. 꿈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잠을 덜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자고 싶을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등 스스로의 행동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에도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수 대불련 회장은 "정목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내 인생에 배워가는 것이 하나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우리 삶의 많은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서 나중에 미래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향후 각 학교별 동아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대학생들의 학내 불교동아리 가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신도조직, 권역별 목소리 듣는다

중앙신도회,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개최

영남지역 신도조직 활성화 주제 90여 신도 임원 참여해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에 참여한 신도대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는 '2017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가 11월 14일 대구에서 '영남지역 교구신도회 간담회'로 시작됐다.

3년째 이어온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는 2015년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구성과 함께 중앙신도회와 종단, 지역신도회와의 유대관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교구신도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첫 번째 간담회는 11월 14일 대구 문화웨딩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권역별 간담회에는 제8교구 신도회(직지사), 제9교구 신도회(동화사), 제10교구 신도회(은해사), 제11교구 신도회(불국사), 제14교구 신도회(범어사) 등 영남지역 교구신도회 대표자들과 사찰신도회 임원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서는 조계종 신도조직 현황 공유 및 신도회 중점 사업소개, '신행혁신 운동의 의의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특강, 교구별 활동 공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 종단 내적으로는 출가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재가 신도들의 역할과 교구신도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됐다.

각 신도회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신도회 중 운영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 추진중인 교구신도회 및 사찰 신도회의 신도등록 사업 추진 주체 발굴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신도회는 이와 함께 11월 20일 예산 수덕사 황화정루에서 충청지역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22일 호남지역, 29일 수도권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 측은 "지역 신도회 활동을 장려하고,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11월 11일과 12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신도회 임원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신도단체 임원의 역할과 의무' 강연과 정현우 에듀이즈 기업컨설팅 강사의 '신도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및 소통의 기술'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서도 모범신도회 운영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다도와 참선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봉은사 11월 18~30일 달항아리 특별프로그램 개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이천 도자기 명장 지강 김판기 작가의 전통 도예 작품인 달항아리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전시해 함께 감상하며, 다도와 참선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불교에서는 달을 이용한 비유가 많다. '수월관음', '월광보살' 같은 표현에서 보이듯, 달은 '자비로움'과 '청정함'이라는 수승한 마음의 덕을 표현하기 위한 더 없이 좋은 구상적 표현 재료로 사용된다.

지강 김판기 작가는 1958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해 2000년 제28회 동아공예대전 대상,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도자전 특별상, 2001년 제1회 강진 청자 공모전 최우수상, 2008년 세계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지정, 2010년 제1회 빛고을 공예대전 금상 등에 빛나는 명인이다. 2016년에는 이천 도자기 명장으로도 지정됐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템플스테이사무국 으로 연락하여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26 **노덕현 기자**

소외이웃 김장 나눔에 한파에도 '훈훈'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고양서 김장 나눔 행사

소외 이웃의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과 한화S&C(대표이사 김경한)가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한화S&C와 함께 11월 15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서 '제8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요즘 겨울을 나기 위한 소박한 김장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로 8년째 함께하는 한화S&C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이웃들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상임이사 묘장 스님과 조계종자원봉사단, 한화S&C 대표이사와 임직원,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결혼이주여성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마음으로 소외이웃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가정에 전달했다.

한화S&C 김경한 대표는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화S&C는 앞으로도 재단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의미를 더했다.


'따듯한 아랫목 만들기 김장행사'가 11월 15일에 진행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공**

이날 자비손길로 정성스레 담근 2000kg의 김치와 백미 500kg은 고양시 일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200가구에 전달됐다. 봉사단의 온정에 감동한 한 어르신은 "불교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셔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진형 기자

공불련 제15차 사회봉사의날 실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12월 9일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에서 공불련 제15차 사회봉사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공불련은 2003년마다 매년 사회봉사의 날을 정해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72명의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있다. 공불련 회원들은 청소와 어르신들과 대화 나누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공무원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믿고 따르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며 "공무원 불자 개개인이 수행의 자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묵담대종사, 그의 선·교·율



귀의 삼보 하옵고

금번 묵담대종사문도회에서는 묵담 대종사 탄신 121주년을

맞이하여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대종사님의 향훈을 결집한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 출판 봉정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묵담 대종사님의 법향의 자리에

함께 하여주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1년(서기 2017년) 11월 吉日

묵담대종사문도회 대표 수열 합장

일 시 2017년 11월 25일(토, 음력 10월 8일) 오전 8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 제주시 516로 3120(아라일동)

문 의 064-783-3203(수암스님) 064-702-7851(춘강정사)

봉정식 수열스님·수암스님·수진스님 (사회:수상스님 집전:수지스님 고유문낭독:대성스님)

시간	내 용
08:30~09:15	-축사1: 한국불교태고종 편 백운 스님 -축사2: 대한불교조계종 암도 스님 -축가 :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 -환영사 : 춘강 이동한 거사
	학술대회 (진행 : 이종수 교수)
	학술대회 제1부 (사회 : 고대만 교수)
09:15~10:15	〈제1발표〉 이중표(전남대) : "묵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제2발표〉 김경집(진각대학원대학) : "근현대 한국불교와 묵담 대종사" 〈제3발표〉 최종남(중앙승가대) : "묵담 대종사의 전법"
10:15~10:30	휴 식
10:30~11:30	〈제4발표〉 김호귀(동국대) : "묵담선풍의 구조적 특징과 그 전개 고찰" 〈제5발표〉 이자랑(동국대) : "묵담 대종사의 율학과 행" 〈제6발표〉 태경스님(동국대) :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1:30~13:00	점심 공양
	학술대회 제2부(사회:최종남 교수)
13:00~14:00	〈제7발표〉 인재철(제주대) : "묵담성우선사의 법명과 법호의 지전적 해석, 그리고 계승과 법어 등에 나타난 선사의 사상" 〈제8발표〉 만춘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 : "묵담 대종사의 예수재에 대한 연구" 〈제9발표〉 박용진(능인불교대학원대학) : "묵담유물관 소장 「범망경」 및 계율관련 불서의 현황과 의의"
14:00~14:15	휴 식
14:15~15:15	〈제10발표〉 정지희(서울역사박물관) : "고종의 후궁 보한당 귀인정씨와 임상궁의 사주품" 〈제11발표〉 박윤미(단국대) : "묵담유물관 소장 섬유류 유물" 〈제12발표〉 유근자(동국대) : "묵담스님과 담양 용화사 불교조각"
15:15~16:00	휴 식
16:00~17:00	〈제13발표〉 유경희(국립중앙박물관) : "담양 용화사 불교회화의 특징과 의미" 〈제14발표〉 이종수(순천대) : "묵담유물관 소장 근대 이전 불서"
17:00~17:10	- 폐회사 - 사홍서원